

교회 목표

신성한 예배
천국 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وة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크리스마스 메시지⑩ (금요찬양집회)**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시편 85:8)**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미국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선물의 목록을 만들기 때문에 선물을 교환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 목록 중에서 선물을 준비한다. 그러나 선물 중에는 어느 곳에서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이 있다. 이 선물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능력이나 이해를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나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꿈조차도 꿀 수가 없다. 이처럼 귀한 선물을 우리는 고요하고 거룩한 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받았다.(눅 2:14) 이것이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소식이었다. 그의 아들의 탄생은 온 세상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천군 천사들의 소리로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셨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평화이다. 평화야말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놓칠 수가 없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바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약속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준비하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나에게 이 평화가 있는가?' 살펴보아야 한다. 이 평화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느 한 곳이나 또 전쟁의 문제 같은 것들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위험하고 심각한 환경은 심한 영적인 반향과 혼란에서 오는 증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토록 포악함으로 찢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이 세상에 보내주신 평화의 선물을 말하고 있다. 이 평화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말할 때에는 전쟁이 없는 것을 뜻한다. 물론 성경 속에서도 이런 뜻으로 평화가 사용되기도 했다.(왕상 5:12) 그러나 성경 안에서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쓰여진 평화는 샬롬(Shalom)이다. 샬롬은 진정한 상태, 풍성하고 하나로 일치된 상태이다. 전쟁이 없는 것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조화를 이룬 상태로, 전쟁의 가능성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 선물이다.(시 85:8 ; 눅 19:42)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른다.(미 6:8; 암 4:1; 잠 18:23) 온 세상에 평화가 없을 때에 결코 인간 한 사람에게만 평화가 있을 수는 없다.(사 5:8 ; 눅 6:31) 이기적인 욕심으로 율통불통해진 땅들은 기경되어 평평해질 것이며, 열악한 조건 속에서 협약해진 곳은 부드러워질 것이다.(사 40:4) 그때에 하나님의 평화의 선물이 이 땅에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들의 뿌리를 흔들어 재정리하실 것이다.(렘 6:14~15) 영적인 각성,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이 평화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찾기 보다는, 평화를 찾아 자신에게로 초점을 돌린 비극의 역사이다.(요 14:27)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인간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는 약속을 주신다.(사 43:18~19)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다. 그의 아들, 곧 평강의 왕이시다.(사 9:6) 하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요 1:14)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시고 사람들 사이에 참된 화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되셨다.(렘 2:14) 전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렘 2:12)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한 평화가 있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하락하신 이 평화를 받지 못하고 있을 것인가! 다른 길은 없다. 평화는 그 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참 평화를 하늘 위에서 내려와 내 심령 안으로 흘러 넘쳐야 한다. 그러므로 평화의 깊은 말구유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인내는 우리의 몸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

전쟁과 온갖 흉흉한 소문이 그치지 아니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크리스마스의 궁극적인 선물이다. 이 평화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그 언젠가는 이 땅에도 가득 채워질 것이다. 이제 그의 오심을 기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자. 예수 그리스도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니, 그 말씀은 곧 평화이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렘 2:14)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창세기 15:1)**담대한 믿음으로 세워나갈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히 11:8)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야 두려워 말라 너는 나의 방패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창 15:1)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은총으로 2008년 교회 전체 조직을 정비했으며 또한 새로운 일꾼들도 세웠습니다. 또한 2008년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주요 행사 일정도 확정되었습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취시리라 하셨느니라"(렘 5:14) 이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분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가 보혈로 거듭난 신자라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해야 합니다.(고전 2:2)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를 향한 악한 영들의 꾀박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최후 승리가자 될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골 2:15)

*2008년 교회 주요행사 일정표 및 교구모임 정소는 본지 7면 참조하십시오.

12월 교회 일정

- 2월(주) 제4차 CMTC 훈련 1(찬양예배 후)
- 9월(주) 겨울성경학교 교사강습회
(제1교육원회, 오후 12:10)
- 제4차 CMTC 훈련 2(찬양예배 후)
- 12월(수) 총력 교회주변 전도
(여전도회, 수요일 2부 예배 후)
- 장기교회(예: 결산, 수요2부예배 후)
- 15일(토) 총력 교회주변 전도
(남전도회, 오후 2시)
- 16일(주) 은퇴자 사상(찬양예배 시)
특별 제직회(찬양예배 후)
- 20일(목) 성탄축하 찬양의 밤
(제1·3교육원회, 저녁 7시)
- 22일(토) 제4차 CMTC 직무훈련(오후 2시)
- 23일(주) 성탄 특별찬양(찬양예배 시)
- 25일(화) 성탄절 감사예배(오전 9시, 11시)
- 30일(주) 제6차 영혼 및 세례식(찬양예배 시)
공동의회(찬양예배 후)



Sermon for Next Sunday

THE BIRTH OF HIS SON

⁽⁴⁾But when the fullness of the time came, God sent forth His Son, born of a woman, born under the Law,

⁽⁵⁾So that He might redeem those who were under the Law, that we might receive the adoption as sons.

⁽⁶⁾Because you are sons, God has sent forth the Spirit of His Son into our hearts, crying, "Abba! Father!"

⁽⁷⁾Therefore you are no longer a slave, but a son; and if a son, then an heir through God.

(Galatians 4:4~7)

Our Lord Jesus Christ came to this earth, therefore, let us rejoice and be happy! He came because He wanted to cast out the fear of death and gave us eternal promises. His desire is not to give believers a hard time, but to make their lives full by filling them with true happiness. God sent forth His Son, born of a woman, born under the Law, to redeem us so that we might become His children. Jesus Christ was born poor from a woman and without an earthly father. Sadly, this earth was not ready for the Savior, "And she gave birth to her firstborn son; and she wrapped Him in cloths, and laid Him in a manger,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Lk. 2:7) God's chosen people were waiting for their Savior, but when the source of Life came they did not welcome Him. They did not invite Him into their hearts and homes. Thankfully, the evil of this earth could not prevent Him from being born. It treated Him badly, but it could not get rid of Him. As God's people of grace, let us share our happiness with others because Jesus opened the door for you and me and all the earth. He is the only One who can make this earth free. He opens His arms widely, and saves whoever believes in Him.

My dear saints, praise Him with your hearts deeply and purely. Truly applaud Him in His victory. He is the only One who can make cursed humans into God's children. He is the only One who can forgive sin. He gave the Gentiles, not the Jews, the insight of His gift. The magi had no Bible or prophet, but only saw one little star in the sky. From that perfect star, they believed and exceedingly rejoiced. (Mt. 2:9~11) We are born as slaves to sin, but through our faith in Jesus Christ we become God's children and heir to His treasure, "Therefore you are no longer a slave, but a son; and if a son, then an heir through God." (v. 7) When the fullness of time came, the Son of God came in His infinite wisdom. His gift brought beauty and harmony from heaven to earth. Ephesians 2:14~16 says, "For He Himself is our peace, who made both groups into one and broke down the barrier of the dividing wall, by abolishing in His flesh the enmity, which is the Law of commandments contained in ordinances, so that in Himself He might make the two into one new man, thus establishing peace, and might reconcile them both in one body to God through the cross, by it having put to death the enmity." Can you believe it? The birth of Jesus Christ unites us with God, "So then you are no longer strangers and aliens, but you are fellow citizens with the saints, and are of God's household." (Eph. 2:19)

My dear saints, sincerely appreciate the incarnation of the Son of God. The Creator God became human. He divested Himself from heaven to invest Himself in earth for our benefit. He emptied Himself, "taking the form of a bond-servant, and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en." (Phil. 2:7) He was exactly like us, except without sin. He was born under the law, under David, through the Virgin

Mary, who was made holy and pure through the fruits of God. God becomes human is truly a mystery, truly only something God could envision and execute. The Holy Spirit and the power of the Most High came to the Virgin Mary to make her God's mom. She found it hard to understand, but God's angel explained everything (Lk. 1:30~33), and the Virgin Mary responded, "Behold, the bondservant of the Lord; may it be don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Lk. 1:38) She confessed her faith, and God glorified her as the vessel for the birth of His Son.

My dear saints, be grateful that "the fullness of the time came," and recognize the value of God sending forth His Son as a human. (v. 4) The Son of God lived with God from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All things came into being through Him, and apart from Him nothing came into being that has come into being.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en." (Jn. 1:1~4) Jesus Christ is the Word of God,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saw His glory,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Jn. 1:14) Jesus Christ is the only source for bringing God and man together. 1 Timothy 2:5 says, "For there is one God, and one mediator also between God and men, the man Christ Jesus." This is God's wisdom. This is the Almighty God! Humans cannot understand by mere brain power, "but to those who are the called, both Jews and Greeks, Christ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1 Cor. 1:24) Faith brings understanding.

Finally, my dear saints, please open your hearts to God's great love, close your heart to pride, and experience the wonderful life of faith. Give thanks to the Father, who has qualified us to share in the inheritance of the saints in Light. Praise God for His amazing grace, "But God, being rich in mercy, because of His great love with which He loved us, even when we were dead in our transgressions, made us alive together with Christ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and raised us up with Him, and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Eph. 2:4~6) Peter exclaims, "seeing that His divine power has granted to us everything pertaining to life and godliness, through the true knowledge of Him who called us by His own glory and excellence. For by these He has granted to us His precious and magnificent promises, so that by them you may become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having escaped the corruption that is in the world by lust." (2 Pet. 1:3~4) Jesus is coming again, "For He is coming to judge the earth. He will judge the world in righteousness and the peoples in His faithfulness." (Ps. 96:13) If you believe in Jesus, you become God's child and fall in His love, which makes you righteous. If you obey and listen to God's word, the end result is happiness. The Christmas message is all blessing. I hope you are blessed. Amen. 🙏

다음 주일 설교

그의 아들의 나심

④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⑥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⑦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4~7)



김성관 목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자들에게 시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어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가 될 요셉과 동침하기 전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세상은 구세주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말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눅 2:7) 하나님의 선민들은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세주가 오셨을 때 그들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집에는 예수님을 맞아드릴 자리가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땅의 악한 권세는 예수님의 탄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악한 권세는 예수님을 홀대할 수는 있었지만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이여,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을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팔을 넓게 벌리고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찬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에 전심으로 환호하십시오. 예수님은 저주 아래 놓인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은총의 선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성경도,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이 있는 작은 별 하나 뿐이었습니다. 그 완전한 별을 보고 그들은 믿었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마 2:9~11)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유업을 상속할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7절) 때가 차매, 하나님의 아들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천국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14~16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파시고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엢 2:19)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빌 2:7)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야말로 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성령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했고 그녀는 하나님 아들의 모친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고 (눅 1:30~33),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의 계집 종이었으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 1:38)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고,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의 아들을 탄생시킬 그릇으로 사용되는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찬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달으십시오. (4절) 하나님의 아들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 1:1~4)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유일한 길입니다. 디모데전서 2:5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리스도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전 1:24) 믿을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부인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마음을 여시고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믿음을 통한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십시오. 그 놀라운 은총을 찬양하십시오. “궁중에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엢 2:4~6) 베드로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에 속한 허물을 앗으셨고 우리를 의롭고 하므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쫓겨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벧후 1:3~4)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라”(시 96:13)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한다면 우리는 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온통 은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

수요 1부 예배 메시지 (2007. 11. 21.)

추 수

(요한복음 4:34~38)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놀라움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일찍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다. 우물가에서의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만남은 놀라웠다.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요 4:18) 사설 당시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과 당시 유대인들이 천시하였던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인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놀라운 사건이었다. 그러나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으며 모든 전통과 관습을 초월하였다. 예수님과 그의 계속된 대화로 수가성 여인은 복음을 깨달았다. 같은 사마리아인들로부터도 버림받았던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녀는 즉시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외쳤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요 4:29) 그녀는 사마리아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요 4:30)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 3:26) 복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옷을 입음 때 모든 인종과 신분을 초월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 (갈 3:27~28)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수 있다. (갈 3:29) 이를 위해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이다. (갈 4:1~5) 그런데 우리는 이 은총의 역사를 믿지 못해서 다시금 천한 초등학교생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려고 한다. (갈 4:9~10) 우리 안에서는 ‘믿음’ 보다 끊임없이 ‘어떻게? 언제? 무엇?’만을 반복하여 외칠 뿐이다. 성경 속의 예수님을 만나기보다는 성경을 인격수양 내지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려고 한다.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살 수 있다.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났으면 믿음으로 나아가 복음을 외쳐야 한다. 추수가 끝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수는 준비되었다.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놀라운 만남이 있을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왔다. 제자들은 수가성에서 먹을 양식을 구해왔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요 4:32)고 말씀하셨다. 이에 제자들은 이미 두 군가짜 예수님을 음식으로 드린 줄로만 알았다. (요 4:33) 제자들은 수가성 여인의 구원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려 한 사악한 시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 4:34)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몰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다. (요 6:38~39)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의 밭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요 4:35) 추수는 준비되었다. 곡물을 위한 추수준비가 아니다. 영혼의 추수이다. 추수가 필요한 영혼들이 이미 넘쳐나고 있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추수의 준비가 되었기에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영혼 추수를 위한 모든 삶은 이미 자물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살고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 4:36) 그런데 일꾼이 없다.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있지만 정작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 추수를 위해서 나서는 일꾼이 없다. (마 9:36~37)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추수의 일꾼은 성령의 사람이다. (행 1:8) 이것저것 따지며 전통과 이론을 내세우는 일꾼은 오히려 추수에 방해만 될 뿐이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추수의 일꾼이 필요하다. (행 12:17)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은 가만히 앉아 있으려야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사울의 때가 지나면 다 죽을텐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불타올라야 한다. 한 영혼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도 추수할 영혼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마 9:38) 지금 당장 일할 수 있는 추수의 일꾼이 필요하다.

가기에는 삼급이 있을 것이다. 영혼의 추수가 있는 곳에 삼급이 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령하시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삼전 2:19~20)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영혼 자체가 삼급이다.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니라” (고후 1:14) 추수된 영혼으로 가득한 천국의 모습을 그려보자.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누릴 참 기쁨이 느껴지는가?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 (딤후 4:1~2)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전심전력한 일꾼에게 의로우신 재판관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딤후 4:8)

위대한 추수는 영혼을 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전통과 관습을 초월하여 사마리아의 수가성으로 가서 한 여인을 만나주셨다. 복음을 깨달은 이 여인은 물동이라도 버려둔 채 동네로 달려가 복음을 전하였다. 그 여인을 통해서 추수된 영혼들이 무엇을 고백하였는가?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노라” (요 4:42) 영혼을 구원하신 위대한 추수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 열심과 준비를 통해서 할 수 없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영혼은 추수되기 때문이다. 추수는 준비되었다. 삼급도 있을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추수할 일꾼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실천자가 필요하다. 그 추수꾼은 바로 보혈의 은총으로 구속을 받은 우리이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쉼을 부려 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로다.” (찬 260장) 아멘.

마가복음 강해 ④

* 마주 참조요새까지도(새책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광야의 시험

(1:12~13)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 1:13) 그런데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들과 4:1~11 : 눅 1:1~13에 비해 광야의 시험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 대신 마가는 천사들의 수종에 대해 언급했다. 40일 동안 금식으로 예수님의 육신은 심히 지쳐있었다. 이 때 천사들이 지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이 모습은 로마법나루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와 수종 들었던 천사의 모습을 생각나게 한다. (왕상 19:5~8)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사나이에 올라갔던 모세도 떠오르게 한다. (출 24:18)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다. 이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를 매일 공급 받았으며, 불가통과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받았다. 그 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 그들은 불만증후군이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사십 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민 14:33) 어떤 달콤한 유혹이 울리지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 세상과 타협할 때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들짐승과 같이 있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의 평화스러운 광경을 연상케 한다. 또한 사나운 들짐승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이사야선지자가 예언한 천국의 한 모습(사 11:6~9)과 사자굴 속의 다니엘(단 6:27)을 떠올리게 한다. 반면에 일부 학자들은 들짐승에 대해서 예수님의 원수로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시다.

현재 우리는 아주 험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광야의 시험 중에 있다. 우리의 시선이 광야를 방황하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은가? 우리의 시선이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 있는가? 광야에서의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 힘과 노력, 또 다른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힘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을거라는 막대한 생각을 포기하자. 험한 광야의 여정을 두려워하지 말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자. 오직 예수님이 진리이시라 대답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자. 승리는 믿음을 실천하는 신자들의 것이다. 아멘.

성령님의 사역

이번이 두 번째 선교였다. 그래서인지 나는 무척 고만했다. 이전의 선교 경험이 나를 게으름의 함정에 빠뜨렸다. 선교를 온전히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결과 선교 심사에서 2차·3차 모두 재심을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나는 회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망 섞인 기도까지 했다. 이처럼 갑작한 나에게 주님은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 죄인을 더 크게 사용하려고 그러시는구나!” 동시에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던 굳어진 나의 심령을 보게 하셨다. 이전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주님 앞에 너무도 부끄러워 회개하였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나는 또 다시 나를 부인하지 못했다.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워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 했다. 결과는 변하였다. 처음 만난 영혼에게 아주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의지하였나이다. 나의 모든 걸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에게 회개의 부름을 골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아닌 성령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니 만나는 영혼마다 성령님은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였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 뒤 영접기도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서는데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불러 달라고 하였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번 거절을 당하였지만 당황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끝까지 나를 인도해주셨다.

유용열(집사, 6교구)

선교는 주님이 하십니다

선교지의 환경은 매우 열악하였다. 전기와 수도는 물론이고 화장실까지도 형편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우리가 이 곳에 온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었다. 해가 뜨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였다. 해가 지면 캄캄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기에 잠을 청했다. 오히려 이러한 환경이 우리를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한 가정을 방문하였다. 어린 아이들만 있었다. ‘그냥 돌아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서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셨다. 간단한 인사를 건넨 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찬송을 했다. 진도지를 읽게 하였다. 함께 찬양으로 된 진도지를 보며 찬송하였다. 처음에는 4~5명이던 아이들이 점점 많아졌다. 정말로 성령님의 역사가였다. 잠시 후 이웃집으로 이동하였다. 그 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렸다. 조금 전 우리가 복음을 전한 아이들의 집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그 아이들은 동그렇게 둘러앉아 우리가 나누어 준 진도지를 읽고 있었다. 그리고 찬송했다. 작은 교회학교, 지금 막 세워진 주님의 교회였다.

“오, 주님! 선교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쓰여지는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역사였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으로 하지 않으리라는 철저한 자기부인을 다짐하였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다음 사역지로 향했다. 제는 또한 더위로 땅으로 벌박이 되었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독수리가 날개치듯 힘찬 복음 사역자의 날개짓을 하며 나아갔다. 주님께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었다! 이 한 날을 오직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된 삼 가운데 역사하신 은혜에 기뻐하면서...

한진희(집사, 17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1월 26일(월) ~ 12월 4일(화)	21교구	김재춘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1월 19일(월) ~ 11월 27일(화)	20교구	강만수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1월 12일(월) ~ 11월 20일(화)	3·1·2·4교구 연합	이부성
11월 13일(화) ~ 11월 21일(수)	9·10·18·22교구 연합	김을필

드림의 기쁨

이번 선교는 어느 때보다 준비하는 것이 힘들었다. 특히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어서 더욱 분주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나의 시간을 먼저 드리라는 생각으로 임하니 마음은 늘 기쁨으로 가득했다. 이 기쁨은 고스란히 선교지로 이어졌다.

선교지에 와서 보니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곳은 벼농사로 2모작을 하고 있었다. ‘물집이 풍요로운데도 이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 대답은 간단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이었다. 우상 숭배로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 그들이 정말 안타까웠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그들은 사탄의 울무에 걸려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우상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였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음을 전하였다. 나의 선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이 변하기를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다.

황윤성(집사, 22교구)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는 중고등부 시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다. 이후 나의 삶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이었다. 나의 중심에는 나와 교회의 학문뿐이었다. 물론 교회는 계속 다녔다. 결혼 이후에도 남편과 함께 충현교회에서 10년이 넘도록 신앙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신앙을 빙자한 또 하나의 사회 생활일 뿐이었다. 이처럼 외식으로 가득했던 나를 주님은 때가 되었을 때 부르셨다. 나의 마음을 주님과 말씀으로 감동하게 만드셨던 것이다.

예배와 집회를 통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나의 귀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말씀 속에 담겨진 복음을 깨달으며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고민과 갈등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깨달았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주님은 나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셨다. 찬양의 입술을 주셨다. 특히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는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30년이 넘도록 교회를 다녀도 느껴 보지 못했던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나는 아직 너무 연약하다. 그러나 점점 나의 시선이 그리스도께 고정되고 있음을 느낀다. 나만을 위한 행복한 삶이 아닌,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영혼들을 향한 눈물을 주셨다. 이세사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모든 깨달음이 생각과 말로 끝나지 않도록 나는 더욱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다. 십자가에 집중할 때 주님은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리라 믿는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위기를 기회화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본다.

전현희(집사, 13교구)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기형제는 부인 오나, 딸 미소와 함께 경기도 광주에 살면서 외선부하 출석한지 3년이 지난 몽골형제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사정이 여의지 않을 때에는 석 달에 두 번, 이렇게 우리교회에 출석하는 형제였습니다. 그런 어기형제가 지난 6월에 학습을 받았습니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미루어왔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학습 교육이 있던 지난 6월에는 한 달 내내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니다. 드디어 학습을 받던 6월 마지막 주일에는 학습을 받는다는 기쁨으로 어기형제의 얼굴은 팔팔하게 달아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한 때 어기형제는 술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을 매우 주저했습니니다. 그러나 이제 어기형제는 술을 마시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였습니니다. 그 증거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니다. 그는 인근에 살고 있던 누나 매갈마와 조카 아누카를 교회로 인도하였고, 또 매형 사이칸과 큰 누나 부부와 그의 친구들도 광주지역 담당 교사인 나에게 인내하여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30일 밤늦게 어기형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니다. 서툰 한국어이지만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말했습니니다. “매형이 죽었어! 선생님!” 나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서둘러 광주로 갔습니니다. 광주의 어느 병원 영안실에서 어기형제를 만났습니니다. 전날 밤 어기형제 집으로 놀러갔던 그의 매형 사이칸이 30일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니다. 정말로 당황스럽고 놀랄만 한 상황이었지만 어기형제는 아주 침착하였습니니다. 그는 매형의 죽음이라는 사실보다는 매형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는 사실에 안도하였던 것입니니다. 그는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니다.

그 순간 저는 사이칸형제가 살아 있을 때 많을 천국복음을 전하지 못하였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 눈물을 흘렸습니니다. 예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건만 몽골형제들이 처한 열악한 삶만 동경하면서 제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을 헤아려주셨습니니다. “의·식·주에 살인 위업을 저지른 자목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라는 위임목사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기형제는 사이칸형제의 발인 예배에 참석한 많은 몽골형제들 앞에서 “매형은 하늘나라로 갔어요. 여기 있든지 몽골로 가든지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요.”라고 고백 하였습니니다. 전례와 사고처리 및 보상 절차의 모든 합당한 과정에서 어기형제가 한 걸음씩 믿음의 입문으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느꼈 습니니다. 오히려 한국 땅에 태어난 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라”(출 22:21)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저는 저의 악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니다. 그리고 저를 복음의 도구로 삼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순종하리라!’ 다짐하며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니다.

몽골집 교사(외선부)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나는 교회 생활을 정말 기쁘게, 감사해 하며 열심히 했다. 그럼에도 정작 위임목사를 통한 말씀은 은혜로 받기보다 항상 반복해서 듣는 말씀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다. 그러다가 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아들들을 위해서 나는 갑작스레 한국을 떠나야 했다. 환란한 사막에 혼자 버려진 듯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찾아다녔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서 항상 들어왔던 그 말씀, 그 십자가 복음을 그곳 교회에서는 만날 수 없었다. 그러면서 나는 진짜 복음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위조지폐는 진짜지폐를 계속 만지다 보면 저절로 구별된다고 하는 것처럼 충현교회에서 항상 들던 진짜 복음, 그 십자가 복음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분별력이 생겼던 것이다.

2년 만에 돌아온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외국에 가기 전에는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십자가 복음’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나의 정욕과 자랑, 자존심에서 나온 ‘내 스스로 만든 복음’이었음을 확실히 깨달았다. 나는 내게 참 믿음과 평안을 주시는 그 십자가 복음에 목말라 모든 예배와 집회에 빠질 수가 없었다. 위임목사의 설교 테이프를 몇 차례씩 반복해서 들었다.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은총의 강물 속에 흠뻑 빠져 지냈던 그 시간은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었다. 십자가의 복음, 그 말씀이 있었기에 아이들과의 심각한 갈등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십자가는 나의 갈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다. 자기부인, 나 자신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정욕과 자랑, 자존심 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만이 내가 살 수 있음!

나의 삶은 바뀌었다. 이 삶은 내가 바꾼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바꾸신 것이다. 이후의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의 삶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었고, 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었다. 아들답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뿐만 아니라, 지각하거나 조는 성도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잘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는 나를 자녀 삼아 이같이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은총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기둥 구름기둥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기적이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나를 놀랍게 변화케 해 주신 주님을 아저 진정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공성연(집사, 5교구)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797	곽재영	18	대학부	김두승(6)	1808	신민섭	8		심영준(16)
1798	윌리	25	외선부	황영철(20)	1809	김건우	16	대학부	박성명(16)
1799	송유정	1	청년1부	정선현(24)	1810	김상남	23	청년2부	김동민(23)
1800	박진수	9	청년2부	조용현(16)	1811	박재민	16	중등부	
1801	유현정	9	청년2부	조용현(16)	1812	정봉성	3	청년2부	
1802	손영숙	8	청년2부	신영호(1)	1813	문희근	3	청년2부	
1803	박지훈	3	중등3부	이경현(16)	1814	정영희	1	청년4부	강욱원(1)
1804	박지원	3	소년부	김세형(16)	1815	유기현	10	청년2부	이준열(21)
1805	송재일	2	장년1부	이희우(14)	1816	전은희	18	청년1부	정재원(15)
1806	김정현	24	초등부	손다문(24)	1817	김종욱	19	청년2부	조옥자(19)
1807	신민아	8	유치부	심영준(16)	1818	김은형	19	청년2부	임선영(19)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2008년 교회 주요행사 일정

날 짜	행 사 명	날 짜	행 사 명	날 짜	행 사 명
1월	겨울성경학교 / 겨울수련회 경로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1 (화) 6 (주일) 9 (수) 27 (주일)	6 (주일) 9 (수) 27 (주일)	피택자교육 개강 (10/4 종강) 정기당회 학습세례식 (2차)		교회설립 기념주일 (가족연합예배) 제68기 교사양성부 개강 (11/23 종강) 제38기 찬양대원양성부 개강 (11/23 종강) 교회설립기념 특별찬양예배 정기당회 수요성경공부 2학기 개강 (11/26 종강)
2월	겨울성경학교 / 겨울수련회 전반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경로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제의 수요일 (사순절 새벽기도회 시작) 6 (수) 13 (수) 22 (금) 24 (주일)	5월 4 (주일) 7 (수) 11 (주일)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성찬식 (4차) 어린이 · 어버이주일(가족연합예배) 정기당회 성령강림주일(오순절)	10월 8 (수) 17 (금) 22 (수) 24 (금) 26 (주일)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정기당회 피택장로 (주제발표) 임직예배 (장로/안수집사/권사) 청지기훈련 (3차) 종교개혁주일 학습세례식 (5차)
3월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성찬식 (2차) 정기당회 5 (수) 9 (주일) 제67기 교사양성부 개강 (5/25 종강) 제37기 찬양대원양성부 개강 (5/25 종강) 임시당회 (일꾼 추천) 수요성경공부 1학기 개강 (5/28 종강) 12 (수) 종려주일 (가족연합예배) 16 (주일) 17-21(월-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21 (금) 성금요일 (성찬식 3차) 23 (주일) 부활주일 부활주일 특별찬양예배 일꾼 후보 공고 (주간총현) 공동의회 (일꾼 투표) 30 (주일)	6월 4 (수) 8 (주일) 20 (금) 22 (주일)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정기당회 제직회 계절학교 교사강습회(제1교육위) 청지기훈련 (2차) 학습세례식 (3차)	11월 2 (주일) 5 (수) 16 (주일)	신년도 예산안 심의 신년도 직분자 심의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성찬식 (7차) 정기당회 추수감사주일 (가족연합예배) 추수감사 특별찬양예배
4월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7월 6 (주일) 9 (수)	여름성경학교 / 여름수련회 단기선교팀 파송 성찬식 (5차) 백추감사주일 정기당회	12월 10 (수) 17 (수) 18 (목) 19 (금) 21 (주일) 25 (목) 28 (주일)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정기당회 임시당회 (예/결산) 성탄축하 찬양의 밤 (제1,3교육위) 성탄축하 특별찬양 특별 제직회 은퇴자 시상 성탄절 감사예배 학습세례식 (6차) 공동의회
		8월 6 (수) 24 (주일)	여름성경학교 / 여름수련회 단기선교팀 파송 후반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정기당회 학습세례식 (4차)		
		9월 7 (주일)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성찬식 (6차)		

2008년 교구모임 및 수요영성훈련 장소

교 구	교구모임	수요영성훈련	교 구	교구모임	수요영성훈련	교 구	교구모임	수요영성훈련
1교구	복지관 지하2층	제1교육관 305호	9교구	본당 1층 112호	본당 112호	17교구	선교관 지하2층 메추리기울	제1교육관 509호
2교구	제1교육관 401호	제1교육관 401호	10교구	제1교육관 601호	제1교육관 304호	18교구	제2교육관 3층	제1교육관 405호
3교구	제1교육관 207호	제1교육관 410호	11교구	제1교육관 영아부실	제1교육관 505호	19교구	제2교육관 2층 A홀	제1교육관 408호
4교구	제1교육관 201호	제1교육관 310호	12교구	제1교육관 307호	제1교육관 307호	20교구	본당 지하 1층 호산나홀	호산나홀
5교구	제2교육관 2층 B홀	제1교육관 308호	13교구	복지관 지하1층	제1교육관 309호	21교구	본당 지하1층 갈릴리홀	제1교육관 510호
6교구	제1교육관 407호	제1교육관 407호	14교구	본당 1층 베다니홀	베다니홀	22교구	제1교육관 301호	제1교육관 301호
7교구	제1교육관 507호	제1교육관 507호	15교구	본당 지하1층 아멘홀	아멘홀	23교구	제1교육관 501호	제1교육관 501호
8교구	제2교육관 1층 코이노니아홀	제1교육관 508호	16교구	본당 지하1층 할렐루야홀	할렐루야홀	24교구	제2교육관 4층	제1교육관 409호

별 세

- 결 호

- 대상 : 인수집사 전원

[illegible]